

사상 첫 5·6위 챔피언전... 누가 이겨도 기적

소노·KCC, 5일부터 4선승제

창단 첫 우승 vs 6위 첫 정상야심 400km 오가며 역대 최장거리 대결 양팀, 최고의 화력... 창대창 격돌 무명·스타 출신 감독 맞붙어 관심



프로농구 출범 29년 만에 처음으로 정규리그 5위와 6위 팀이 격돌하는 챔피언결정전이 5일 막을 올린다.

고양 소노와 부산 KCC가 만난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은 5일 오후 2시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개최되는 1차전을 시작으로 7전 4승제로 펼쳐진다.

5일과 7일 고양에서 1·2차전이 열린 뒤 9일과 11일 부산에서 3·4차전이 이어져야 했으나 사직체육관 대관 사정으로 4차전이 10일로 당겨지면서 연일 경기 가 생겼다. 이후 5차전이 13일 고양에서, 6차전은 15일 부산에서, 7차전은 17일 다시 고양에서 이어진다.

두 경기장 사이의 거리로 따지면 400km

가 훌쩍 넘는 '최장 거리 시리즈'다.

이번 챔피언결정전은 프로농구 역사상 처음으로 정규리그 5위와 6위 팀이 만나 관심을 끈다.

소노는 2023-2024시즌의 KCC에 이어 2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로 정규리그 5위 팀으로 챔피언전에 올랐다. 2년 전 5위 최초로 챔피언전에 진출해 우승까지 차지했던 KCC는 올해는 6위 팀 최초로 챔피언전 무대를 밟았다. 어느 팀이 우승하든 이번 챔피언결정전 '최초'의 기록이 남는다.

소노는 2023년 고양 데이원을 인수해 창단한 이후 처음으로 치른 PO에서 우승까지 도전한다.

창단 이후 지난 두 시즌 모두 8위에 그쳤던 소노는 올 시즌에도 중하위권을 맴돌

다가 정규리그 막바지 10연승으로 돌풍을 일으키며 '봄 농구'를 처음 경험하고 있다.

6강 플레이오프(PO)에서 서울 SK, 4강 PO에선 정규리그 우승팀 창원 LG를 모두 3연승으로 잡으면서 기세가 하늘을 찌른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이정현과 신인상을 받은 아시아 쿼터 선수 케빈 캠바오, 외국인 백맨 네이던 나이트의 '빅3'가 팀을 이끌고, 이재도와 감지훈, 임동섭 등 뒤를 받치는 선수들도 탄탄하다.

KCC는 이번 시즌 전까지 통산 11차례 챔피언전에 진출해 6회 우승을 달성한 전통의 명문 구단이다.

허훈-허용 형제와 최준용, 송교창, 손흥민까지 MVP 출신이 뭉친 국가대표급 라인

업을 자랑하며 '슈퍼팀'으로 불리는데, 정규리그 맨 부산 변수로 이들을 동시에 가동하지 못하며 6위로 PO 막차를 탔다가 봄 농구에서 진가를 보인다.

6강 PO에서 원주 DB에 3연승을 거뒀고, 4강 PO에선 정규리그 2위 안양 정관장을 3승 1패로 따돌리며 '6위 팀 최초 챔피언 진출'을 이뤘다. 두 팀이 리그 최고의 '화력'을 자랑하는 팀들이라 이번 챔피언결정전 공격 농구의 맞붙이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KCC는 정규리그 평균 득점 83.1점으로 1위에 올랐고, 소노는 4위에 해당하는 79.2점을 넣었다. KCC는 전체 슈팅 시도에서 2점 슈팅이 차지하는 비율이 리그에서 가장 높은(65.4%) 팀이며, 소노는 3점 슈팅 시도

비율이 가장 높다(48.9%).

정규리그 맞대결에선 두 팀이 3승 3패로 팽팽했던 가운데 소노가 점수 득실에서 12점 앞섰다. 이번 챔피언결정전 무척 다른 길을 걸은 두 사령탑의 대결도 관련 포인트로 꼽힌다.

KCC의 이상민(53) 감독은 한국 농구 최고의 포인트가이더이자 '오빠 부대'의 원조로 꼽히는 인기 스타였다.

현역 시절 등번호 11번이 KCC의 영구 결번으로 남기도 한 이 감독은 선수와 코치에 이어 사령탑으로도 KCC에서 우승에 도전한다.

소노의 손창환(50) 감독은 프로에서 네 시즌을 뛰며 통산 득점이 20득점일 정도로 선수 시절엔 눈에 띄지 않았다.

은퇴 이후 미국에서 지도자 연수를 받은 뒤 코치, 감독으로 이어지는 탄탄대로를 밟아 프로 사령탑으로만 9번째 시즌을 치르는 이 감독과 달리 손 감독은 구단 프런트와 전력분석원으로 일하다가 코치를 거쳐 이번 시즌 처음으로 감독을 맡았다.

이상민 감독은 최근 열린 챔피언전 미디어 데이에서 "2년 전 0%의 기적(5위 팀 최초 우승)을 썼듯이 올해도 6위로 '0%'의 기적을 만들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고, 손창환 감독은 "우리 '위너스' 팬들과 함께 꿈을 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역대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1차전을 잡은 팀이 우승한 확률이 71.4%(28회 중 20회)나 돼 첫판을 잡으려는 두 팀의 양보 없는 기 싸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손흥민 '리그 8호 도움'... MLS 단독 선두

손흥민(33-LAFC)이 리그 8호 도움을 기록하며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도움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손흥민의 활약 속에 소속팀 LAFC는 패배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났다.

LAFC는 3일(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FC와의 2026 미국 프로축구(MLS) 1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에 타진 동점 골을 힘입어 2-2 무승부를 거뒀다.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해 후반 15분 라인 라포소와 교체되어 그라운드를 밟은 손흥민은 팀이 0-2로 끌려가던 후반 37분 드니 부앙가의 추격 골을 도우며 반격의 서막을 알렸다.

이로써 손흥민은 리그 9경기에 출전해 도움 8개를 기록, MLS 도움 부문 단독 1위로 도약했다.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7경기를 포함한 공식전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시즌 14호 도움이다.

다만 챔피언스컵에서의 2골을 제외하면

후반 15분 교체 출전 맹활약 팀은 샌디에이고전서 2대 2

아직 리그 득점이 터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경기 초반 흐름은 홈팀 샌디에이고가 완전히 틀어쥐었다. 샌디에이고는 전반 7분 만에 타진 마르쿠스 임바르트센의 선제골로 기세를 올렸다.

임바르트센은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안테르스 드레이어의 크로스를 문전에서 정확히 헤더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에도 LAFC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샌디에이고가 전반 내내 65%의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슈팅 6차례(유효 슈팅 2개)를 퍼붓는 동안, LAFC는 단 1개의 슈팅(유효 슈팅 0개)을 기록하는 데 그치며 무기력한 공격력을 노출했다.

LAFC는 후반 15분 손흥민을 투입하며 공격의 고삐를 당겼으나, 실책 한 번에 다시 무너졌다. 후반 26분 빌드업을 시도하던 중 패스 미스로 공격권을 내준 것이 화근이 됐다.

이를 가로챈 드레이어가 문전으로 공을 보냈고, 임바르트센이 침착하게 잡아둔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대 왼쪽 구석을 정교하게 찔러 넣어 멀티골을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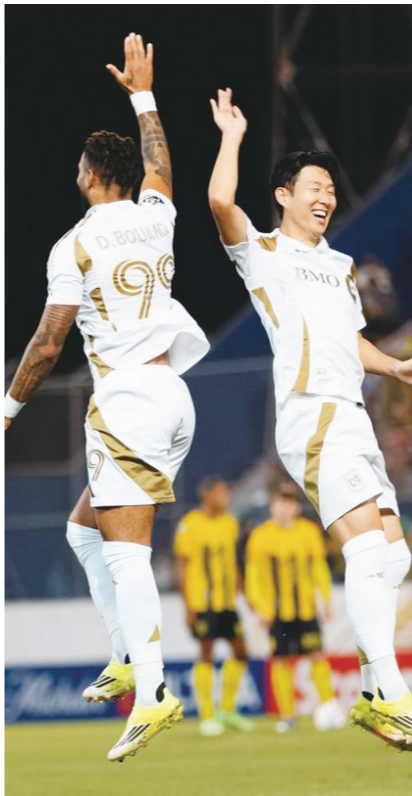
손흥민은 직접 얻어낸 기회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려 애썼다. 후반 33분 아니발 고도이가 팔로 손흥민의 목 부위를 타격한 것이 비디오 판독(VAR) 결과 확인돼 페널티 지역 근처에서 좋은 위치의 프리킥이 선언됐고, 손흥민이 직접 킥으로 나섰다.

손흥민은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으나, 공이 수비벽에 서 있던 고도이의 얼굴을 맞고 굴절되면서 아쉽게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실축의 아쉬움이 채 가시기도 전인 후반 37분, 손흥민은 부앙가의 득점을 도우며 기어이 존재감을 증명했다.

패색이 짙던 LAFC를 구한 건 후반 추가 시간 16분에 타진 극적인 동점 골이었다. 샌디에이고 골키퍼 교체 등으로 길게 주어진 추가시간, LAFC는 마지막 세트피스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코너킥 상황에서 마티우 쇼이니에르가 헤더로 떨어뜨려 준 공을 문전에 있던 라



손흥민(오른쪽)이 3일(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와 원정 경기서 0-2로 뒤진 후반 37분 팀 동료 부앙가의 골을 도우며 하이킥을 시도했다. LAFC SNS

이언 홀링스헤드가 침착하게 왼발 슈팅으로 연결하며 샌디에이고의 골문을 열었다. 손흥민의 도움으로 시작된 반격이 경기 종료 직전 결실을 보면서, LAFC는 패배 직전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났다.

유현조, 3년 연속 우승 신고

제1회 DB 위민스 초대 챔피언 한타 차 시즌 첫 승·통산 3승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지난해 대상 수상자 유현조(사진)가 신설 대회 DB 위민스 챔피언십(총상금 12억 원)에서 2026시즌 첫 승을 수확했다.

유현조는 3일 충북 음성군의 레인보우 힐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보기 2개를 맞바꿔 이븐파 72타를 쳤다.

최종 합계 7언더파 281타를 기록한 유현조는 공동 2위 이다연, 김민솔, 고지원(이상 6언더파 282타)을 한 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2억 1600만 원이다.

2024년 KLPGA 투어 신인왕에 오르며 지난해 19차례나 톱10에 들며 대상과 최저타수상을 거머쥔 유현조는 올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2024년과 지난해 KB금융 스타 챔피언십에 이어 그의 KLPGA 투어 통산 승수는 3승으로 늘었다.

올해 초반엔 주춤했던 그는 지난주 덕



신EPC 챔피언십에서 공동 3위에 오르며 시즌 첫 톱10에 들더니, 6번째 대회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3라운드까지 선두 고지원에게 한 타 뒤진 2위였던 유현조는 이날 전반 한 타를 줄이며 타수를 잃은 고지원을 밀어내고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유현조는 11번 홀(파3) 3.5m 버디 퍼트를 떨어뜨리며 두 타 차로 앞서 나갔으나 14번(파4)과 15번 홀(파4)에서 연속 보기가 나오며 이다연, 고지원에게 공동 선두를 허용해 접전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후 고지원과 이다연이 연이어 타수를 잃으며 유현조는 단독 선두를 되찾았고, 막판 3개 홀에서 파를 지켜내며 우승을 확정했다.

눈으로 읽고 입으로 즐기는 우리말! 일상 속 다양한 표현에 흥미를 더하다

일상에서 무심코 쓰는 말이지만 막상 질문을 받게 되면 대부분은 답변을 내기 전에 잠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다양한 일상의 언어를 주제 삼아 우리말 어법을 넘나들며 두서없이 우리말 산책을 떠나보려고 나섰다.

박재역 지음 | 272쪽 | 17,000원 | 글로벌콘텐츠

맛있는
우리말
200